

윤장현시장 시·도지사중 가장 적어... 정연선 도의원 지역 최고 재력가

<8억원>

<56억원>

6·4 지방선거 신임 선출직 573명 평균재산 10억8000만원

6·4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중 최고 재력가는 정연선 전남도원으로 56억4400여만원을 신고했다. 광주에서는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23억7282만원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도지사 중 보유 재산이 가장 적었으며, 이낙연 전남지사는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0일 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게재한 '6·4 지방선거 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 573명의 평균재산은 10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6·4 지방선거에 새로 당선된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광역자치단체장 11명, 교육감 8명, 기초자치단체장 92명, 광역의회의원 462명이다. 재선에 성공한 단체장과 의원 480명은 지난 3월에 재산이 공개돼 이번 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당선자 573명의 평균재산(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포함)은 4년 전 당선자의 평균재산 8억8000만원보다 2억원 가량이 더 많았다.

새로 취임한 광역자치단체장 11명의 7월 1일 현재 기준 평균재산은 22억3000만원이었다. 기초단체장 92명과 광역의회의원 462명의 평균재산은 각각 10억7200만원과 10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낙연 지사 16억원 신고

광주·전남 기초단체장중

김준성 영광군수 32억 최다

시·도지사 가운데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67억4673만3000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윤장현 광주시장은 8억65만2000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액을 등록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16억2523만9000원을 신고해 11명 중 중간 수준이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박우정 전북 군수가 87억234만2000원을 등록해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김준성 영광군수는 32억4395만3000원으로 전국 9위를 기록,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장과 구청장, 광주시의원 등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 17명 중에서는 임우진 서구청장이 23억7282만원을 신고해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 이어 김동찬 광주시의원이 20억6520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반면 임택 시의원은 가장 적은 2894만6000원을 신고했다. 이날 공개된 17명의 평균재산은 6억7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자 48명 중 정연선 도의원이 56억4400여만원을 등록해 이번 신고 대상자 중 광주·전남을 통틀어



167일만에... 세월호법 적극 타결

최고 재력가에 이름을 올렸다. 기초단체장 중에는 김준성 영광군수가 32억4300만원으로 재산등록 대상 13명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현복 광양시장 16억9000만원, 주철현 여수시장 16억600만원, 유두석 장성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여야간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의

장, 박영선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요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군수 15억500만원, 강인규 나주시장 12억89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1억900여만원을 신고해 기초단체장 중 가장 적었다. 전남도의원 중에는 전체 재산등록 대상

34명 가운데 최고 부자인 정연선 의원에 이어 김연일 의원 40억8300여만원, 전정철 의원 17억200만원, 한택희 의원 14억4000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박근혜 의원은 9315만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등록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까지 이들 573명의 등록 내용을 심사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비수도권 신임 시·도지사 9명 전원 서울·수도권에 자가·전셋집 보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0일 공개한 광주·전남 시장·지사 등 민선 6기 신임 광역자치단체장 11명 모두 수도권에 자가 또는 전셋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0일 관보에 게재한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비수도권 시·도지사 9명 가운데 8명은 서울에, 나머지 1명은 과천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자가나 전세로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중 이낙연 전남지사 등 4명은 서울 강남권에 자가나 전셋집을 두고 있었다.

우선 14억7531만원의 금융기관 채무액을 신고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3개 건물의 실거래액으로 11억 8613만원, 예금 8억 7093만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10건) 2억1040만원 등을 등록했다. 윤 시장은 이중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아파트(82.50㎡·2억3000만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윤 시장은 "현재 이 아파트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장녀와 차녀가 거주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본인과 장남명으로 8억1100만원 상당의 건물 3개를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다. 이 지사는 본인명으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아파트(99㎡·5억9100만원)와 영광군 영광읍에 전세 사무실(132.72㎡·5000만원)을 등록했으며, 장남 명의로는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에 전세 아파트(106.86㎡·1억7000만원)를 신고했다.

이 지사측은 "서울 아파트는 오랜 서울생활을 해온 이 지사의 순수한 주거용으로, 조만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지방선거 선출직의 실제 재산은 공개된 것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등록 기준 시점이 선거 약 한달 후인 7월 1일이기 때문이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면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재산이 대체로 늘어나게 된다. /윤현석·박진표기자 chadol@kwangju.co.kr

“국회의원 세비 국민소득 5.6배... 선진국 2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수한 특권을 누리고 선진국보다 2배가량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특권의 정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주제의 제7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발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권 소장은 우선 의원 세비를 1인당 국민총생산(GDP)에 대비해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가 두 배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억376만원으로 1인당 GDP(2450만원)의 5.6배에 이르는 것이다.

권 소장은 또 국회의원 한 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비용을 추산한 결과 세비와 특별활동비 564만원, 보좌진 인건비 3억95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7억7443만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정근수당 1420만원,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300

각종 특혜에 1인 비용 1년 7억

자유경제원 기업센터 소장 주장

만원, 간식비 600만원, 의료실 및 체력단련실 243만원, 연2회 이상의 해외시찰비 2000만원, 차량관련 지원 1849만원, 기타지원금 5179만원, 통신요금 1092만원, 의원회관 경비 4200만원이 포함된다.

권 소장은 이런 금전적 특혜 외에도 강원도 고성 의정연수원 사용, 공항에서의 우대, 해외에서의 재외공관 영접,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열외의 혜택 등을 누린다고 권 소장은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경제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의원에 부여된 입법권·재정권·국정통제권 등을 특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의원회관 사무실·체력단련장 운영비 등을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 인건비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올해 국회 예산 5000억원을 국회의원(300명) 숫자로 나눠 1인당 16억7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 연 2회의 해외시찰이 보장돼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임기 중 한 번도 해외시찰을 다녀오지 않는 의원도 있다”고 해명했다.

의원직을 잠시만 지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데 대해서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19대 의원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는 소득 및 의원재직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전라남도 JeollaNamdo

우리 집만의 “행복한 특권”

3명 이상 자녀 가정을 위한

다자녀 행복 카드

전라남도에서 양육비 경감을 위해 드리는 문화·경제적 할인 혜택

http://jnhappy.bccard.com
BC카드 ☎1588-4000 · 농협 ☎1588-6000
☎061-286-5742

- 연회비 평생 면제 및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TOP포인트 적립
- CGV, 롯데시네마, 프리머스 현장 구매시 건당 1,500원 할인(월 2회, 연 12회)
- 농협 하나로마트 등 판매장 이용 시 5% 할인(월 2회, 1회 최대 5,000원 할인)
- 유치원, 예체능 학원 등 학원업종 이용 시 10% 할인(월 2회, 1회 최대 1만원)